

LG전자

유럽 카메라폰 시장
본격 공략



LG전자가 이탈리아의 메이저 통신업체인 윈드(Wind)사에 회전식 카메라가 장착된 최고급 GPRS 컬러휴대폰을 공급, 유럽 고급형 GSM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이번에 LG전자가 공급한 GPRS 카메라폰(모델명:G8000)은 고성능 11만 화소급 카메라에 6만5천 컬러 TFD-LCD, 동영상 이미지 저장, 40 화음(Poly) 음원칩을 장착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최고급 사양의 제품이다.

또한 듀얼 폴터다입인 'G8000'은 115k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하며, 초대형 10라인 컬러 LCD를 장착해 캐릭터, 사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화려한 색상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카메라폰인 동시에 비디오 캠코더 기능이 지원되어 동영상 비디오클립 구성이 가능한 첨단 제품이다

LG전자 해외마케팅팀 이 호 상무는 "최근 동영상 통화가 가능한 3세대 WCDMA단말기(U8100)을 유럽시장에 선보인 데 이어, 이번 이태리 GPRS 카메라폰 수출을 계기로 최근 유럽 휴대폰 시장의 킬러어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으로 주목 받고 있는 카메라장착 칼라폰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한국, 유럽시장을 비롯해 올 상반기 중으로 중국, 미국 등 전세계 주요 휴대폰 시장에 다양한 카메라 내장형 칼라단말기를 수출할 계획이다.

미국휴대폰 시장
브랜드 마케팅 강화



LG전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중의 하나인 NHL(National Hockey League)에 참가하고 있는 애너하임 마이티 덕스(Anaheim Mighty Ducks) 아이스하키팀 후원 및 인기선수에게 자사 휴대폰 PPL 프로그램 운영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략지역 공략을 지속하고 있다.

LG전자는 전략거점 마케팅의 일환으로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를 대표하는 NHL 팀 Anaheim Mighty Ducks(02년 11월~03년 5월)와 팀의 홈경기장인 Arrowhead Pond(02년 11월~03년 10월)에 대한 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국내 브랜드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Anaheim Mighty Ducks는 현재 소속된 NHL 리그의 2위를 달리고 있으며, Disney Land가 있는 Anaheim의 명문팀이다.

특히, LG전자는 미국내 최대 도시 중 하나이며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 지역 등지에서도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Anaheim Mighty Ducks 후원도 이러한 브랜드이미지 강화전략의 일환이다.

포스테이타(대표 김광호, www.posdata.co.kr)는 최근 재미 IT업체인 STG그룹과 미국 연방 정부의 IT관련 구매 프로그램인 「ECSⅢ(Electronic Commodity Store Ⅲ)」를 통해 IT제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마케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ECSⅢ」는 미국 연방보건성에 IT물품을 즉시 납품할 수 있는 조달 계약 프로그램으로, STG는 지난해 12월 자격을 취득, 향후 10년간 총 50억 달러 규모의 IT물품 조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양사의 협력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포스테이타는 자체 개발 솔루션을 미국 정부에 수출하게 된다. 또한 STG그룹과 함께 SI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양사의 협력으로 STG그룹은 포스테이타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포스테이타는 STG가 확보한 정부조달자격(Prime Contractor)으로 연간 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포스테이타 주관정 상무는 “기존 미국 연방정부의 IT조달 계약 프로그램은 전문기업 등록 후 6개월에서 1년이 되어야 납품이 가능했으나 이번 「ECSⅢ」는 즉시 납품할 수 있어 국내 IT시장에 활력을 불러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스테이타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연방정부의 IT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내 IT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KTF는 지난 26일 카메라폰이 바코드를 인식하여 곧바로 무선인터넷에 연결,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핫코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4월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아이콘랩(대표 이재준, www.iconlab.co.kr)과 공동 개발한 이 서비스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 카탈로그에 입력된 인터코드(인터코드: 무선인터넷 콘텐츠 주소를 입력해 놓은 신개념 2차원 바코드(솔루션 파트너사인 아이콘랩의 공식 2차원 코드))를 카메라폰으로 찍으면 해당 무선인터넷 콘텐츠로 곧바로 연결돼 고객이 휴대폰에서 즉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다.

포스테이타

美 정부 IT 공공시장 진출

KTF

‘핫코드 서비스’

세계최초 개발



KTF

KT아이컴과의 합병선포식 개최

이 서비스는 고객이 별도로 관련 메뉴를 검색하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기존의 어떠한 무선 인터넷보다도 유용하고 신속한 현장 맞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값 비싼 카메라폰을 고객이 정보 검색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콘텐츠 실시간 전송서비스와 모바일 쇼핑 서비스 모바일 예매서비스로, <콘텐츠 실시간 전송서비스>의 경우 인쇄매체에 기재된 동영상, 음악, 벨소리, 배경화면, 게임, 전자서적 등의 콘텐츠를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모바일 쇼핑 서비스>의 경우 상품을 소개한 기사를 찍어 즉시 구입할 수 있다.

별도의 핫코드 서비스 이용요금은 없으며 고객이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만 부과된다.

KTF(대표 남중수, www.ktf.com)가 지난 28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KT아이컴과 공식 합병하는 'KTF-KT아이컴 합병선포식'을 가졌다.

정·관·재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KTF는 지난 1년 여간 진행된 합병이 지난 5일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남중수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양사간 합병 성공을 통해 '모바일 라이프 파트너'라는 비전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KTF는 지난 6년간 이룬 성공과 오늘의 통합을 기반으로 '최고의 가치창출 기업, 초우량 KTF'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KTF 관계자는 "최고의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온 KTF와 첨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KT아이컴과의 통합성공은 차세대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선도할 강력한 시너지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향후 KTF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SK 텔레콤(대표 표문수, www.sktelecom.com)은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중국 CDMA 이동전화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중국 내 무선인터넷 사업을 담당할 합자기업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설립되는 한중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총 600만달러이며, 차이나유니콤이 51%, SK텔레콤이 49%의 지분을 갖게 된다.

양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영업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 등 준비작업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오는 3분기부터는 합자기업을 통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내 합자기업 설립절차를 감안하면 영업허가 시기는 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된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이 합자기업을 통해 SK텔레콤은 독자포털 구축, 독자브랜드 운영, 가입자 관리, 콘텐츠 소싱 등 인터넷 포털운영에 관련한 업무,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 콘텐츠의 판매업무, 무선인터넷 신규 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계약서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다른 업체에 비해 최우대 조건으로 분배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우수 무선인터넷 업체들이 합자기업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합자기업 설립 본 계약으로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자만 2억명이 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무선인터넷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SK 텔레콤은 지난 10일 무선인터넷 NATE를 통해 고객들이 좋아하는 음악관련 콘텐츠를 드라마, 영화, 가수 등의 주제별로 묶어 제공하는 신개념 음악콘텐츠 『뮤직상영관』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뮤직상영관』은 인기가수,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최신 영화 등 매월 특정 주제를 선정해 음악관련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뮤직 포털형 콘텐츠이다

이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고객들은 좋아하는 가수나 드라마의 노래를 다운받기 위해 마이벨, 컬러링 등 각각의 메뉴로 접속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뮤직상영관』에 접속해, 한 곳에서 원하는 음악만을 찾아 나만의 휴대폰을 꾸밀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뮤직상영관』에선 휴대폰을 열 때 동영상 화면과 함께 음악소

SK텔레콤

中 차이나유니콤과 합자기업 본계약



NATE『뮤직상영관』서비스 개시



한국정보인증

법인인증서 신청고객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리가 나는 새로운 콘텐츠 '모바일오르골', 단말기로 직접 벨소리를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는 '뮤직TOY박스' 등도 제공 된다.

『뮤직상영권』을 이용하려면 무선인터넷NATE에 접속해 <4.뮤직/그림/포토>를 선택해 해당 음악을 클릭하면 되고, 특히 일부 인기 콘텐츠의 경우 오전6시부터 낮12시까지의 『뮤직상영권』 정보이용료에 조조할인 개념을 적용해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정보인증(대표 강영철, www.singate.com)이 동종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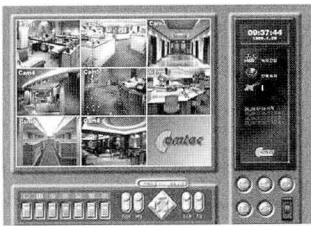
한국정보인증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 회사의 직원이나 등록대행(RA)기관의 직원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신원확인에서 서류접수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것이다.

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법인이 직접 공인인증기관이나 RA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객의 시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공인인증서 신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하면 해당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고객에게 연락한 후 직접 방문하게 된다.

콤텍시스템

국민·외환은행 DVR-net 공급 계약 체결



정보통신 중견기업인 콤텍시스템 (대표 남석우, www.comtec.co.kr)은 국민은행과 35억, 외환은행과 23억의 디지털감시카메라(DVR-net : Digital Video Recorder-Network)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보안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외환은행 전국 영업점에 설치되는 디지털감시카메라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CCTV의 단점인 화상의 감시 및 저장방법, 녹화된 화상의 검색, 녹화된 데이터의 보관, 운영방법 등을 새롭게 보완한 디지털 방식의 감시체계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최적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등 보안성을 제고하고 반영구적이다.

그동안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감시카메라를 공급해 온 콤텍시스템은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금융권 전역으로 영업력을 확대할 계획이다.